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SEPTEMBER 12, 2009

한국 미술품 큐레이터들 '버크 콜렉션' 관람

미국 내 유명 박물관에서 한국 및 아시안 미술품을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뉴욕에 모였다. 이들은 11일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관장 로버트 털리)가 주최한 '버크 콜렉션' 관람 행사에 참가했다. 맨해튼의 아시아 미술품 전문 콜렉터 메리&잭슨 버크 콜렉션은 국보급 불화석가삼존도(1565) 등 일반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은 희귀 한국 미술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람 행사에는 큐레이터 제인 포털(보스톤 아트 뮤지엄), 수잔 빈(피바디 에섹스 뮤지엄), 우현수(필라델피아 뮤지엄), 캐더린 폴(뉴왁 뮤지엄)과 저패니즈 아트 소사이어티 앨리슨 틀만 명예 회장이 함께 했다. 〈사진제공=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